



일

쿨

싱그러운 초봄의 새벽 내음이 자
못 기자의 코끝을 간지럽힌다.

지난 3월 중순경 강원도 교육의
총책임자인 金商俊 교육감의 인터뷰

길에 京春街道에서 느낀 감상이다. 자고 로 강원도하면 대한민국에서 山水 좋
기로 他道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기에 기자가 물고가는 차도, 마냥 경쾌하게
달린다. 꼭두새벽인지라 경쟁하는 차도 별로 없고 주위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
어 더욱 좋았다.

강원도지부 사무실에 도착한것이 8시 반경, 아직 출근시간도 되기 전이건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벌써 출근하여 자기가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니 지부 직원들의 성실성에 더욱 마음이 든든하다.

張在晟사무국장, 威俊鎬서무과장, 安碩錄 검사소장등이 반가히 맞아준다. 역
시 예전에 한방에 근무한적이 있는 사람들이라 더욱 친근감이 가지나 보다.

×

×

강원도 교육의 總帥 金商俊 교육감은 한치의 쉴 틈도 없이 바빠 움직이고 있
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도내에는 551개 국민학교, 157개 중학교, 106개 고등학

江原道 教育위원회

교육감 金商俊씨

고등 총 814개 학교와 46만 4천여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자리이기 때
문이다.

金교육감은 속칭 K·S마크인 서울의 K 고등학교와 S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서 문교부에서도 요직을 거친 교육계의 베테랑이다.

중후한 몸매에 인자한 모습을 한 金商俊 교육감은 따뜻하게 기사를 맞이해 준
다.

— 학생들의 연 2 회 기생충검사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再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60년대의 기생충 감염율이 지금은 현저히 떨
어져 일부학교에서는 0%가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검변을 연 1 회로 줄인다거나 포기한다면 우
리는 또다시 기생충왕국의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결과
에도 나오듯이 재감염의 우려가 절대적입니다.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속담도 있지요 결코 1 회로 줄여서는 아니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金 교육감의 모습이 역력하시다.

『더구나 간흡충, 조충, 요충등 특수기생충 구제는 앞으로도 계속 구제해야 할

기생충들입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金교육감의 모습에서, 이런 교육자 밑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참으로 행복하겠구나를 기자는 느끼면서 다음 질문을 던진다.

— 교육감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시는데 座右銘으로 삼으셨던 理念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를 교육이념으로 삼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둘째 학력의 향상을 중점지도하고 있지요.

사실말이지만 학생층은 모든면에서 기성세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의 기성세대 부정의식은 외국의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가까운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양반이예요. 이것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것을 고쳐주고 지도해주는것이 우리 교육자의 사명으로 압니다. 도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 특히 말세의식을 갖지 말고 현실을 희망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또 절대로 굳건히 시는 사상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이 희망적인 사실은 과거 유교의 사상과 기풍이 크게 뒷바침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로 학력의 향상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다 가장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지요 미국이나 일본이 막강한 선진국가로 부상한것도 전부 교육이 개혁되어 그것이 밑바탕이 된것이지요.

미국만 하더라도 일등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들이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 “년간 수업일수를 늘려라” “주간 수업일수를 늘려라”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외국어교육이나 수학, 과학교육의 강화라던가 숙제를 주어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는것도 지금의 일등국가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힘이 주어지면서 톤이 높아지시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명감과 교육이념의 투철함 때문이리라 —

『사실말이지만 우리나라는 맨주먹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려면 쫓아가야하고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잘 살려면 역시 교육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상적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질적향상은 곧 국력이 그만큼 세어지는것이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전인교육(全人教育) 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교육이념아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넓게 시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全商俊교육감의 말씀에서 다른분과의 대화에서 느끼지 못하는 색다른 그 무엇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강원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특색이라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진 : 기자 및 기
협 강원지부간부
와 대담하는 金商
俊 教育감(中央)



『첫째 년차적인 양호교사의 증원, 둘째 불소 양치사업 확대, 셋째 양호교사 연수(년50명); 넷째 양호실 확대, 다섯째, 각종 병리 검사 실시등을 들 수 있겠지요 특히 일년에 산간오지의 선생님들을 춘천에 모이게 해서 양호겸직교사로서 이론과 실제를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연간 100명 정도를 계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再論을 필요치 않을 정도로 각종 검사의 실시는 당연한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질질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방의학의 개념들을 매개로 해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일깨워주는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양호겸직교사양성 특별교육은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발전이고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겠어요!』

85년도 강원도 교육지표를 지·덕·체를 고무 갖춘 한국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겠노라는 金商俊 교육감은 앞에서 말했듯이 세부적으로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전인교육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교육여건의 개선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다짐한다.

◎... 金교육감은 서울의 景福中学을 졸업, 서울대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도교위 부교육감, 서울시교위 학무국장, 문교부 장학실장, 인천교육대학 학장을 거쳐 81년 강원도교위 교육감에 취임 85년 1월에 재선임되어 앞으로 4년간 연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취미는 운동, 테니스는 퇴근후에 곧 바로 코트-에 들어가 3~4 게임을 쳐야 몸이 풀린다는 가히 프로급이다.

부인 金永愛 여사와의 사이에 1男 3女. 「강원도 자체가 건강이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에는 별로 신경을 안쓴다는 말을 꼭 써 달라는 「조크」도 잊지 안으시는 인간미 넘치는 金교육감이시기도 하다.